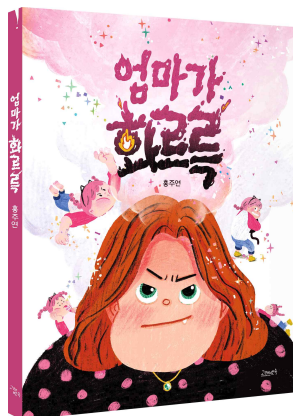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가 화르륵』

정보 홍주연 글·그림 | 36쪽 | 210*280mm | 양장 | 16,000원

주제어 엄마, 공감, 모녀, 고양이, 관계, 사랑

교과 연계

1학년 1학기 사람들 2-7. 우리 가족
1학년 1학기 사람들 2-16. 내가 도와줄게요
1학년 2학기 국어-가 1-1. 흥내 내는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1학년 2학기 국어-나 8-1. 인물을 상상하며 작품 감상하기
1학년 2학기 하루 11. 마음의 하루

뜨겁다 못해 탄내 나는 엄마와 딸의 역할 교환식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눈에서 하트가 뿜뿜 나올 만큼 귀여운 고양이를 만난 건! 고양이는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와서도 온종일 제 머릿속에 동동 떠다녔죠. 그래서 저는 양손을 허리에 척! 엮고, 선언했어요. “나 고양이 키울래!” 하지만 역시나 엄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제 표정에도 꿈쩍하지 않고 그저 안 된다고 할 뿐이었죠. 흥, 그럼 별수 있나요. 필살기를 쓰는 수밖에요. 식사 시간에 사탕 먹기, 목욕 시간엔 도망가기, 위험한 곳에 올라가기까지! 어라? 그런데 초특급 엄마 말 안 듣기 종합 세트도 전혀 안 통하는 게 아니겠어요? ‘난 정말 고양이를 키우고 싶단 말이야!’ 속상한 마음에 문을 ‘쾅!’ 닫아 버렸죠. 그때였어요. 쿵쿵, 방문 밖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 보았더니 글썽,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지 뭐예요? 야호! 드디어 고양이가 생겼어요! ㅎㅎㅎ, 내가 엄마처럼 진짜 잘 돌봐 줄게!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이 독서 지도안은 10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했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엄마가 화르륵』은 어떤 책일까요? -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2	* 너 정말 엄마 말 안 들을래?! -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
읽으면서	책 속으로 쏙! 들어가요	3	* 엄마가 고양이로 변해 버렸어요! - 이야기 재구성하기
		4	* 사랑으로 돌본다는 건 -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가기
		5	* 마음의 길을 열어 주는 방법 -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6	* 역(易)! 누가 되어 볼까? -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7	* 지(地)! 어떤 사람일까? -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8	* 사(思)! 그 사람이라면? -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9	* 지(之)! 직접 경험해요! - 연극하기
		10	* 아빠가 주르륵, 엄마가 화르륵. 그다음은? - 이야기 만들기

책을 읽기 전 계획과 기본 정보를 다진다.
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림책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엄마가 화르륵』은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엄마가 화르륵 글 작가: 홍주연 그림 작가: 홍주연 출판사: 고래벳속
---	---

◎ 표지를 펼쳐 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 속의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인상을 쓰고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엄마와 신난 아이
_____이(가) 보여요.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화르륵 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이야기일 것 같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너 정말 엄마 말 안 들을래?!

◎ 아이는 귀여운 고양이를 꼭 키우고 싶다며 떼를 쓰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해요. 아이와 엄마는 각각 어떤 마음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아이가 한 행동

밥 먹기 전에 사탕 먹기,
목욕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험한 곳에 올라가기

그에 대한 엄마의 행동

화를 꼭꼭 참으면서 달래기

그 이유는?

고양이를 꼭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 말을 잘 들으면서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린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잘 들을 때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이야기를 만들어요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재구성해 본다.

엄마가 고양이로 변해 버렸어요!

◎ 불같이 화가 난 엄마가 ‘화르륵’하더니, 새까만 고양이로 변해 버렸어요. 엄마를 되돌릴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읽고, 떠올려 보세요.



엄마를 되돌리는 법

화가 식도록 집을 시원하게 한다.

아빠를 불러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뽀뽀해 주라고 한다.

◎ 『엄마가 화르륵』에서는 화가 난 엄마가 고양이로 변해 버렸지만, 고양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면 무엇으로 변할까요?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제목: 엄마가 오르렁 어흥

떼쓰는 아이의 모습에 화가 난 엄마가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며 ‘오르렁’ 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 (으)로 변해 버렸어요!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떼쓰지 않겠다고
엄마 호랑이와 약속했습니다.



경험을 나눠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간다.

사랑으로 돌본다는 건



◎ 여러분은 이야기 속 아이처럼 반려동물을 돌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동물을, 없다면 언젠가 함께 살고 싶은 동물을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반려동물 그림)

- 이름: 코코
- 종류: 강아지
- 나이: 7살
- 성별: 암컷
- 처음 만난 장소: 4살 생일,
아빠가 집에 데려왔다.

◎ 반려동물을 돌본 적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반려동물을 돌본 적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돌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코코 (을)를 돌볼 때,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다녀왔더니, 휴지를 뜯어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두었다.
하지만 코코는 휴지를 뜯어선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코코를 혼내지 않았다.
그래서 코코가 조금 부러웠다.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활동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성찰한다.

마음의 길을 열어 주는 마법

◎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엄마를 원래대로 돌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장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되돌려준 것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의 의미를 아이가 몸소 겪으며 깨달은 것

이 장면의 의미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더 보듬고 안아 줄 수 있다.

◎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역지사지’의 한자어를 찾아 써 보고, 나만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易	地	思	之
뜻: 바꿀 음: 역	뜻: 땅 음: 지	뜻: 생각할 음: 사	뜻: 갈 음: 지

역지사지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하며 가 보아라’ 라는 뜻이다.

◎ ‘역지사지’의 뜻을 생각하며, ‘역지사지’를 포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역지사지 해 보면 도움이 된다.



생각을 정리해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주제에 다가간다.

역(易)! 누가 되어 볼까?

◎ 평소에 마음이 궁금했던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궁금했나요? 누군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엄마가 화르륵』 속 인물을 골라도 좋아요.



• 그 사람의 이름: 김고래

•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남매

◎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했나요? 그때를 떠올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 언제? 작년 추석

• 어디서? 할머니 댁

•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내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이유는? 나는 그냥 마당에서 자전거를 탔을 뿐인데,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

• 아마도 그 사람은,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부러웠나 보다.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주제에 다가간다.

지(地)! 어떤 사람일까?

◎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는 14 살!

하는 일은 중학생
(이)란다.

나에겐 _____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
_____ (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난 _____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것
_____ (을)를 가장 좋아하고,
_____ 병원에 가는 것
_____ (을)를 가장 싫어해!

난 사람들이 _____

나를 바라보며 밝게 웃을
_____ 때 무척 기뻐!
하지만 _____
위험한 행동을 할
_____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아플
_____ 땐 슬퍼.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주제에 다가간다.

사(思)! 그 사람이라면?

◎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했던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본 그 사람을 떠올리며,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_____ 김고래 _____ 에게 그 상황은 내가 다칠 수도 있는 위험 _____ (한) 상황이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생각엔 괜찮았지만, 마당엔 화분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에는
마땅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_____ 내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김고래가 내게 화를 낸 _____ (한) 것은,
나를 걱정했기 _____ 때문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픈 것을 싫어하는데 그때 내가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활동을 통해 새롭게 이야기를 경험한다.

지(之)! 직접 경험해요!

◎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구현하는 대본을 써 보아요. 말을 나타내는 대사와 행동을 나타내는 지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나: 심심해! 자전거 타자! (자전거를 창고에서 꺼내며)

김고래 : 안 된다. 뭘 자전거인데.

나: 왜? 아직 삼촌 오려면 멀었잖아. (자전거를 타며)

김고래 : 그래도 마당에서 자전거 타지 마라.

나: 왜? 그러면 뭐 할 건데?

김고래 : 들어가서 엄마 도와드려야지.

나: 난 안 들어갈래.

김고래 : 에휴. (한숨 쉬며) 니 알아서 해라.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며)

나: 아, 어디 가는데?

김고래 : 나는 분명히 자전거 타지 말라고 했다. (문을 꽁 닫으며)

◎ 대본 속 나의 역할은 친구가 말고, 그 사람의 역할은 내가 맡아 친구와 함께 역할극을 해 보세요. 그리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역할극을 통해 나는 어떤 무엇을 느꼈나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자전거를 계속 타서 답답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 봐야겠다.

이야기를 만들어요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며 이야기의 형식을 이해한다.

아빠가 주르륵, 엄마가 화르륵. 그다음은?

◎ 『엄마는 화르륵』의 저자, 홍주연 작가님은 『엄마가 화르륵』 이전에 『아빠가 주르륵』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다음 『아빠가 주르륵』의 소개 글을 읽고, 『아빠가 주르륵』과 『엄마가 화르륵』 다음으로 쓰일 책을 상상해서 소개 글을 적어 보세요.



『아빠가 주르륵』

글·그림 홍주연
고래벅속

어스름한 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곧았던 아빠의 허리와 넓은 어깨는 종일 일에 시달린 탓인지 추욱 처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루 종일 기다린 아빠를 부르며 달려 나오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마음은 퍼지는데 몸은 여전히 천근만 근입니다. 아빠는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기 위해 같이 놀자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욕조 안에 들어가 스르륵 몸을 누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지친 몸을 푹 담근 사이 긴장을 너무 풀어 버린 탓이었을까요. 아빠의 몸이 그만 거짓말처럼 주르륵! 녹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빠가 걱정되어 욕실 문을 연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그만 눈물을 터뜨립니다.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아빠를 조심조심 유리병 속에 담은 것까진 성공했지만,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과연 가족은 아빠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책 제목: 동생이 띠용띠용

책 소개 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내 동생!
걷는 법 없이 항상 뛰어다니는 축구공 같은 내 동생!
'재는 공으로 태어났어야 해.'
앗! 어느 날 아침, 내 동생이 정말 공이 되어 버렸어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원래대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를 어쩌죠?